

5세아와 7세아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 대한 정서예측 및 정서설명

김 미 정 ·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 생활과학연구소*

Emotion Expectations and Explanations of Participants During Rule Transgressions by Five-Year and Seven-Year-Old Children

Kim, Mi Jeong · Yi, Soon H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motion expectations and explanations of four participants(an actor, a recipient, a child observer, and an adult observer) in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rule transgression situations. Six vignettes describing the rule transgressions were presented to 200 children who were either five or seven years old. The children were asked to predict and explain each participant's emotions. The children's emotion expectatio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omain of the rule transgressions and on the type of the participant. The actors were predicted to feel happy during all transgressions, while the recipients and two observers(a child and an adult) were predicted to feel unhappy. The seven-year-old children attributed more happiness to the actors, and more negative affect to the recipients compared to the five-year-olds. This result was in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older children attributed more happiness to actors. This finding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happy victimizer'. Some categories of emotion explanation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omain of rule transgressions. The personal rule transgressions, newly defined and examined in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less serious than the moral rule transgressions in terms of the intensity of the negative affect.

Key words: moral rule transgressions, social-conventional rule transgressions, personal rule transgressions, emotion expectations, emotion explanation

I. 서론

영역구분이론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및 아동

들은 이르면 생후 32개월부터 도덕과 사회인습의 개념적 차이를 알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그것이 도덕적

접수일: 2009년 4월 17일 채택일: 2009년 5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Kim, Mi Jeong Tel: 82-2-880-8752 Fax: 82-2-871-2506

e-mail: kmarrian@naver.com

영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사회인습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판단한다(Nucci & Turiel 1978; Turiel 1983; Turiel et al. 1987; Killen 1991; Smetana 1981; Smetana & Braeges 1990). 도덕적 규칙위반이란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의 복지,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 또는 손실 등 내재적 결과를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도덕적 규칙위반은 사회인습적 규칙위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사회적 맥락이나 규칙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이란, 사회조직의 합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습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은 규칙이 없다면 허용될 수 있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여겨진다(Nucci & Turiel 1978; Turiel 1983; Turiel 2008). 유아 및 아동들은 규칙위반의 영역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유를 다르게 설명한다. 유아 및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위반에 대해서는 타인의 복지로 빈번히 설명하고,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 대해서는 전통, 처벌과 사회적 조직 등으로 빈번하게 설명한다(Turiel 2008). 도덕적,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 속하는 행위들과 달리 개인적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에 속하는 상황이나 행동들은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개인적 영역이란 행위의 영향이 행위자에게만 미치며 규칙이나 권위자에 의해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영역으로, 개인의 선택 및 재량권이 존중되는 영역이다(Nucci 1981; Nucci & Smetana 1996). 유아와 교사들도 유아들에게 개인적 영역이 있으며 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Killen & Smetana 1999). 이와 같은 영역구분 경향은 비서구 사회의 아동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왔다(Shweder et al. 1987; Song et al. 1987; Turiel et al. 1987; Turiel et al. 1991; Yau & Smetana 2003). 이와 같이 영역구분이론에서는 도덕적, 사회인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판단과 개인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으나, 개인적 영역에 상응하는 '개인적 규칙위반'의 개념

과 그에 대한 판단은 연구되지 않았다.

규칙위반 상황은 흔히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갈등과 강한 부정적 정서를 수반하므로 매우 정서적인 상황이다(Smetana 1999). Damon (1988)은 공감, 연민과 같은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우리가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를 강화해주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장기적으로 도덕적 가치의 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신경생리학 연구에 의하면 도덕판단에서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 모두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Greene et al. 2004). 따라서,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영역의 규칙위반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이러한 규칙위반 상황과 관련된 정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사회도덕적 상황과 관련된 유아의 정서 이해는 상황과 등장인물에 따라 다르다.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실패, 친사회적 행동, 가해행위 상황에 따라 행위자, 행위 수령자, 교사의 정서를 다르게 판단한다.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 및 가해행위 상황의 행위자가 관찰하는 교사가 있을 때 더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보았으나 친사회적 행동실패상황의 행위자는 교사존재 여부에 따라 정서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Sy et al. 2003). Arsenio(1988)에 따르면, 유치원아, 3학년, 6학년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위자와 수령자가 매우 행복하게 느낄 것으로 보고, 괴롭힘 당한 타인을 돕는 행위자와 도움을 받은 수령자는 혼합 정서나 부정적 정서를 느낄 것으로 귀인했다. 유아 및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과 인습적 위반을 목격하는 성인과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반면, 친사회적 행동을 목격하는 성인과 아동은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다른 연구(Arsenio et al. 1989)에 의하면 아동들은 행위자와 수령자의 정서를 묘사한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사회도덕적 사태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 및 아동들은 등장인물이 특정한 정서상태를 느끼는 이유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한다. 정서설명이란 사

회도덕적 규칙위반을 묘사하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 즉 위반행동을 한 행위자, 피해자,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이 느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서와 관련하여 왜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유아 및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위반의 피해자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이유를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반면, 가해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은 행동의 결과 얻어진 물질적 이득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Arsenio et al. 1989). 도덕적,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의 관찰자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정서예측과 정서설명이 피해자에 대한 것과 유사한가,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정서예측과 정서설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유아 및 아동의 사회도덕적 규칙위반과 관련된 정서 연구에서 중요 논의주제가 되어 온 현상이 소위 'happy victimizer'이다. 이는 가해자가 성공적인 가해행위를 한 후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거나 긍정 및 부정의 혼합정서를 느끼기보다는 기분 좋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 아동의 신념이다(Arsenio & Lover 1995). happy victimizer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Arsenio 1988; Arsenio & Ford 1985; 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 & Sodian 1988; Wiersma & Laupa 2000)에 따르면, 유아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귀인하나 약 6-8세 사이에 접어들면 가해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응답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가해자에게 혼합정서를 귀인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유아들이 가해자가 얻은 물질적 이득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귀인하다가, 더 나이가 들면 피해자의 고통과 손실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가해자가 부정적 정서도 함께 느낀다고 조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Arsenio & Lover 1995). 우리나라 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김성민 1993)는 4, 6, 8세 유아 및 아동들이 대부분 도덕적 위반의 가해자가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10세에는 이러한 응답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아 및 아동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 귀인의 변화가 서구 아동보다 과연 늦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없어 분명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예측과 정서설명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규칙위반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측에서 보고된 연령 변화가 우리나라 취학전후 유아 및 아동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와 아동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행위자, 피해자,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에 대한 정서예측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와 아동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행위자, 피해자,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에 대한 정서설명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유아 100명 및 만 7세 아동 100명, 총 200명이며 남녀 동수이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the subjects by age and gender (N=200)

Variables	N	Mean(SD)*
Age Group	5 years	100
	7 years	100
Gender	male	100
	female	100

* monthly age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학원 등에 재원하는 유아 및 아동들로 총 213명을 면접하였으며, 일부 면접 과제가 누락된 13사례를 제외한 200명의 면접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 귀인 현상은 학령기 이후에 감소하거나 혼합정서 귀인으로 변화하며(Arsenio, 1988; Arsenio & Kramer, 1992; Arsenio, 1988; 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 & Sodian, 1988), 금지규칙과 욕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해 ‘규칙 위반-욕구충족-긍정적 정서예측’에서 ‘규칙 준수-욕구 불충족-긍정적 정서예측’으로 판단하는 변화가 약 5.7세 경에 일어난다고 한다(Lagattuta 2006).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학급과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배우므로 사회도덕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므로 아동들이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정서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예측하고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대상을 만 5세와 7세로 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영역별로 2개씩, 총 6가지로 구성하였다. 도덕적 규칙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Nucci (1981)와 Smetana 등(1999), Wiersma와 Laupa (2000)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도덕적 규칙위반인 때리기와 빼앗기이다. 때리기는 한 아이가 같은 반의 다른 아이를 때리는 상황이며, 빼앗기는 한 아이가 같은 반의 다른 아이로부터 과자를 빼앗아 먹는 이야기이다. 도덕적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에는 위반 행위를 한 아동(행위자), 피해자, 그리고 같은 반의 관찰자 아동, 상황을 복도에서 지켜보는 관찰자 성인이 등장한다.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박영신(2001), 최보가와 송미화(1997)가 사용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정리하지 않기(미술활동 후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노는 아동의 이야기)와 식사시간에 돌아다니기(점심식사 도중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이야기)이다.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서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

해자가 없으므로 행위자와 관찰자 아동, 관찰자 성인만 등장한다. 끝으로, 개인적 규칙위반은 개인적 영역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규칙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다른 아이의 가방 열어보기(자리에 없는 친구의 가방 속 들여다보기)와 다른 사람의 공간 차지하기(친구의 자리(또는 유아용 옷장)에 자신의 걸옷을 놓아두기)이다. 이상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5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 및 아동들이 듣고 응답하는 데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도덕적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도덕적 위반 - 때리기>

지금부터 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한 가지씩 인형극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어요. 그냥 ○○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돼요.

이 이야기는 어느 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와 나이가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볼까요?

이 아이는 영희(영수)예요. 영희(영수)가 걸이고 있는데 같은 반 아이인 은지(재우)가 있어요.

갑자기 영희(영수)가 은지(재우)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요.

영희(영수)가 은지(재우) 어깨를 때리는 것을 같은 반에 다니는 미연(준석)이라는 아이가 보고 있었어요.

영희(영수)가 은지(재우) 어깨를 때리는 것을 어린이집(학교)에 계시는 어른 한 분이 복도에서 보고 계셨어요 (Fig. 1 그림 (1),(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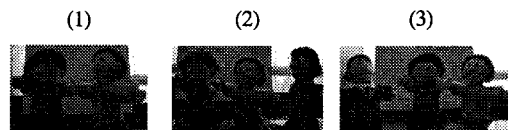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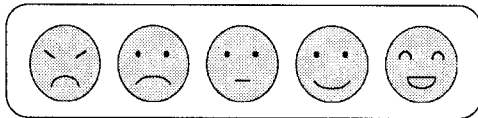


Fig. 1. The pictures of the hand puppets in a moral transgression (bitting story)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는 손인형을 사용한 일대일 면접법으로 제시하였다. 규칙위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이 그려진 이야기카드를 읽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면접시간 동안 주의를 집중시키고 다양한 등장인물들 간의 혼동을 막는 데는 단조롭고 미흡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Denham 등(1994)이 유아의 정서 이해를 조사할 때 사용한 손인형 시연법을 사용하였다. 손인형은 기성제품의 특정한 외양적 특징으로 인해 정서예측 및 설명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표정을 한 것으로 제작하여 사용했다. 이야기가 진술되는 동안은 입을 다문 모습으로 보여주어 특정한 정서 상태를 나타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등장인물들은 연구대상의 성별과 동성으로 제시하였다.

2) 정서예측

정서예측은 Sy 등(2003)이 사용한 것과 같이 ‘매우 기분이 나쁜’(1), ‘조금 기분이 나쁜’(2), ‘중간인’(3), ‘조금 기분이 좋은’(4), ‘매우 기분이 좋은’(5)으로 나누어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각각의 정서를 나타내는 원형의 얼굴표정 그림 카드(Fig. 2 그림 참조)를 보여주고 각각의 정서 평정치와 대응해가며 설명해주었으며, 연구대상이 각 평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면 정서예측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다.



* A lot bad - A little bad - In-between - A little happy - A lot happy

Fig. 2. The picture card of the faces used in answering the emotion expectation questions

3) 정서설명

정서설명 of 하위범주는 Sy 등(2003)이 사용한 여섯 가지 범주(‘결과지향’, ‘규범적 관심’, ‘복지에 대한 관심’, ‘공감지향’, ‘이야기 줄거리 반복’, ‘기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는 사

회인습적 규칙위반과 개인적 규칙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조직 및 인습’과 ‘개인의 권리 침해’를 추가하였고,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공감지향’은 제외하였다.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지향’과 ‘정서지향’, ‘모름’ 범주에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정서설명 of 하위범주는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 ‘복지 및 도덕지향’, ‘개인의 권리 침해’, ‘금지 및 규칙지향’, ‘사회조직 및 인습’, ‘처벌지향’, ‘정서지향’, ‘위반행위 반복’, 그리고 ‘기타’와 ‘모름’으로 나뉜다. 각 범주에 대한 설명과 예는 다음과 같다.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이란 행위자가 바라던 물건을 가지게 되었거나 혹은 바라던 결과를 성취했음, 또는 바라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한 하는 경우이다(예: “과자가 맛있으니까요.”). ‘복지 및 도덕지향’이란 개인의 복지,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해, 손실 등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그러면 그 애가 아프니까요.”). ‘개인의 권리 침해’는 개인의 권리, 특히 소유권이나 개인의 영역에 대한 침해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친구의 자리인데 (웃음) 놓아서요.”). ‘금지 및 규칙지향’은 금지 또는 규칙에 대한 준수나 위반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치우고 놀아야 하는데 안 치우고 노니까요.”). ‘사회조직 및 인습’은 사회조직의 합의에 어긋나거나 인습적 규칙에 위배됨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그러면 같은 반 애들에게 피해 주니까요.”). ‘처벌지향’은 위반행위에 대해 벌을 받게 된다고 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이다(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정서지향’은 정서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 자체를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화가 나서요.”). ‘위반행위 반복’은 규칙위반 이야기에서 진술된 위반행위를 반복해서 언급한 경우이다(예: “때렸으니까요.”). 이밖에 규칙위반 이야기의 내용과 무관한 다양한 설명들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가 응답으로 선택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부호화하여 범주별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에 대한 Cohen의 Kappa 지수는 .88이었다.

3. 연구절차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등을 방문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 전공 조사원이 연구자와 함께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실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시 규칙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할 때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야기 순서를 무선으로 하되 서로 다른 영역의 이야기가 교대로 제시되도록 하였고, 등장인물간의 질문순서를 교대로 제시하였다. 면접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면접기록지에 전사하고 정서예측 평정기준과 정서설명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규칙 위반 영역별 및 등장인물별 정서예측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설명의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등장인물별로 영역과 연령에 따라 정서예측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등장인물별 정서설명의 응답율은 비율값이므로 분포의 비정상성을 수정

하기 위하여 아크사인 변환을 실시 한 후(Winer 1971)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연구결과를 유아와 아동의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예측, 유아와 아동의 규칙 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설명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와 아동의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예측

1)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예측의 전반적 경향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행위자, 피해자,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이 경험할 것으로 유아와 아동이 예측한 정서평정치의 전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행위자의 정서예측 평균 점수는 도덕적 규칙위반 3.61점,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3.78점, 개인적 규칙위반 3.37점으로, 세 영역에서 모두 중간에 해당하는 3

Table 2. Percentage of each emotion rating by the domain and the participant type

Domain	Participant	Emotion Rating					N(%)
		A lot bad	A little bad	In-between	A little happy	A lot happy	
Moral	actor	56 (14.0)	52 (13.0)	54 (13.5)	69 (17.3)	169 (42.3)	
	recipient	264 (66.0)	121 (30.3)	8 (2.0)	3 (0.8)	4 (1.0)	
	child observer	131 (32.8)	158 (39.5)	83 (20.8)	14 (3.5)	14 (3.5)	
	adult observer	183 (45.8)	153 (38.3)	47 (11.8)	13 (3.3)	4 (1.0)	
Social-conventional	actor	31 (7.8)	47 (11.8)	67 (16.8)	91 (22.8)	164 (41.0)	
	child observer	149 (37.3)	162 (40.5)	70 (17.5)	14 (3.5)	5 (1.3)	
	adult observer	162 (40.5)	162 (40.5)	61 (15.3)	6 (1.5)	9 (2.3)	
Personal	actor	52 (13.0)	62 (15.5)	80 (20.0)	99 (24.8)	107 (26.8)	
	recipient	216 (54.0)	148 (37.0)	24 (6.0)	4 (1.0)	7 (1.8)	
	child observer	118 (29.5)	150 (37.5)	102 (25.5)	14 (3.5)	12 (3.0)	
	adult observer	151 (37.8)	160 (40.0)	72 (18.0)	13 (3.3)	4 (1.0)	

* In the personal transgression, there is one case of no response for the recipient(2%), and four cases of no response for the child-observer(1.0%).

점을 초과하여 ‘기분이 좋음’ 쪽으로 예측되었다. 피해자의 정서는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평균 점수 1.40점, 개인적 규칙위반에서는 1.59점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예측되었다. 관찰자 아동에 대한 정서예측의 평균점수는 도덕적 규칙위반 2.05점,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1.91점, 개인적 규칙위반 2.12점으로 ‘조금 나쁘다’ 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 성인에 대한 정서예측 평균점수는 도덕적 규칙위반 1.76점,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1.85점, 개인적 규칙위반 1.90점이었다 (Fig.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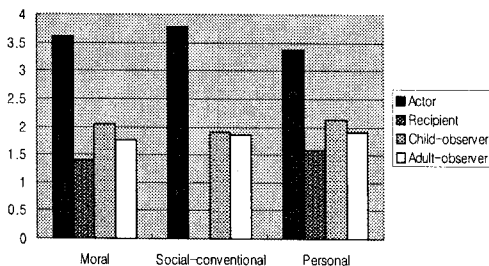


Fig. 3. Mean emotion ratings for each participant in varied sociomoral rule transgressions

2) 영역과 연령에 따른 등장인물별 정서예측의 차이

행위자에 대한 정서예측은 규칙위반의 영역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2, 198)=13.07, p<.001$). 행위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한 정도는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도덕적 규칙위반, 개인적 규칙위반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세 영역 상호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 경향에서 나타난 대로 ‘happy victimizer’ 식의 정서 개념이 도덕적 규칙위반만이 아니라,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및 개인적 규칙위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자의 정서예측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98)=11.20, p<.001$). 즉, 세 영역의 규칙위반에 대하여 7세 아동들은 5세 유아들에 비해 행위자의 정서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6-8세, 혹은 10세 무렵에 위반 행위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귀인하는 경향이

하락하거나 최소한 부정적 정서 또는 혼합정서를 귀인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성민 1993; Arsenio & Kramer 1992; Barden et al. 1980; Nunner-Winkler & Sodian, 1988)와 일치하지 않는다. 8세 아동들도 대부분 행위자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귀인하지만 4세 및 6세 유아에 비해 덜 긍정적인 정서를 귀인한다고 한 결과(Arsenio & Kramer 1992)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5-7세 이후 아동들은 금지규칙과 욕구가 갈등하는 상황의 행위자가 규칙을 지키려는 결정을 한 경우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규칙을 어길 경우 부정적 또는 혼합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본다고 한 연구(Lagattuta 2005)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유아들이 가해자-긍정적 정서, 피해자-부정적 정서 식의 단순하고 이분화된 사고를 나타내다가, 나이가 들면 피해자의 고통과 손실을 고려함으로써 가해자에게 혼합정서나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변화라는 지적(Arsenio & Lover 1995)을 고려하면, 7세 아동들이 도덕적 정서 이해의 측면에서 퇴보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선, 선행연구들에서 도덕적 규칙위반 행위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예측한 응답율이 80%를 상회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5세 및 7세 모두 50-60%대로 훨씬 낮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측에 관한 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예측 및 정서설명에 대한 결과와 연관지어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정서에 대해 유아 및 아동들은 대부분 부정적 정서로 예측하여(도덕적 규칙위반 96.5%, 개인적 규칙위반 86%) 선행연구와 일치했다. 유아 및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위반의 피해자가 개인적 규칙위반의 피해자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았다($F(1, 198)=15.32, p<.001$), 또한, 개인적 규칙위반에서 7세 아동들은 5세 유아들에 비해 피해자의 정서를 더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F(1, 198)=7.82, p<.01$).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정서로 응답한 사례를 합산하면 5세는 도덕적 규칙위반 96.5%, 개인적 규칙위반 86%였으며, 7세는 도덕적 규칙위반 96%, 개인적 규칙위반 96%로, 거의 모든 유아 및 아동들이

도덕적 규칙위반과 개인적 규칙위반에서 피해자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개인적 규칙위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예측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7세 아동이 5세 유아에 비해 행위자에게 더 긍정적인 정서를 예측하는 것은 행위자가 얻은 물질적 이득이나 욕구충족을 중시하고 피해자가 입은 해나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7세 아동들은 가해자의 욕구와 이득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손실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측이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예측도 일부 영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관찰자 아동에 대한 정서예측 역시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198)=7.73, p<.01$). 관찰자 아동에 대한 정서예측 점수

는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서 가장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 도덕적 규칙위반과 개인적 규칙위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덕적 영역과 사회인습적 영역 간, 사회인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입히는 도덕적 규칙위반을 관찰한 아동에 비해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을 관찰한 아동이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습적 규칙위반과 도덕적 규칙위반 간의 점수 차가 2로 근소하다. 관찰자 아동에 대한 정서예측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관찰자 성인에 대한 정서예측 평균점수는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가장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이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개인적 규칙위반 순이었으며,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category of emotion explanation by the domain and the participant type

Domain	Participant	Emotion explanation										
		Outcome orientation/desire fulfillment	Welfare/moral orientation	Transgression of one's rights	Prohibition/Rule orientation	Social organization/convention	Punishment Orientation	Emotion Orientation	Repeat the story plot	Others	Don't know	
Moral	actor	167 (41.8)	23 (5.8)	7 (1.8)	2 (0.5)	6 (1.5)	20 (5.0)	12 (3.0)	112 (28.0)	27 (6.8)	24 (6.0)	
	recipient	3 (0.8)	35 (8.8)	43 (10.8)	1 (0.3)	1 (0.3)	1 (0.3)	19 (4.8)	244 (61.0)	37 (9.3)	16 (4.0)	
	child observer	1 (0.3)	32 (8.0)	10 (2.5)	16 (4.0)	1 (0.3)	6 (1.5)	12 (3.0)	173 (43.3)	109 (27.3)	40 (10.0)	
	adult observer	0 (0.0)	28 (7.0)	7 (1.8)	15 (3.8)	1 (0.3)	1 (0.3)	14 (3.5)	209 (52.3)	81 (20.3)	44 (11.0)	
	Social-conventional	actor	181 (45.3)	5 (1.3)	2 (0.5)	5 (1.3)	7 (1.8)	31 (7.8)	3 (0.8)	102 (25.5)	39 (9.8)	25 (6.3)
	child observer	2 (0.5)	9 (2.3)	0 (0.0)	19 (4.8)	63 (15.8)	5 (1.3)	15 (3.8)	155 (38.8)	96 (24.0)	36 (9.0)	
adult observer	2 (0.5)	9 (2.3)	0 (0.0)	31 (7.8)	39 (9.8)	3 (0.8)	16 (4.0)	180 (45.0)	78 (19.5)	42 (10.5)		
Personal	actor	148 (37.0)	7 (1.8)	20 (5.0)	8 (2.0)	5 (1.3)	28 (7.0)	6 (1.5)	89 (22.3)	53 (13.3)	36 (9.0)	
	recipient	2 (0.5)	11 (2.8)	89 (22.3)	5 (1.3)	1 (0.3)	6 (1.5)	11 (2.8)	202 (50.5)	51 (12.8)	22 (5.5)	
	child observer	0 (0.0)	14 (3.5)	37 (9.3)	17 (4.3)	1 (0.3)	3 (0.8)	13 (3.3)	141 (35.3)	131 (32.8)	43 (10.8)	
	adult observer	1 (0.3)	10 (2.5)	39 (9.8)	28 (7.0)	0 (0.0)	2 (0.5)	10 (2.5)	174 (43.5)	92 (23.0)	44 (11.0)	

나타났다($F(2, 198)=4.34, p<.05$). 사후 분석 결과 도덕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관찰자 성인은 개인적 규칙위반에 비해 도덕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것이라고 유아와 아동들은 보고 있었다. 관찰자 성인의 정서예측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유아와 아동의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설명

1)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 설명의 전반적 경향

규칙위반 상황별 등장인물에 대한 정서설명의 전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가장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정서설명 범주는 ‘위반행위 반복’으로 모든 영역과 범주에 걸쳐서 22.3~61.0%에 이르는 응답율을 보였다. 연구대상 유아 및 아동들의 정서설명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규칙위반 이야기 속의 위반행위 반복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인다.

행위자에 대해 가장 빈도가 높았던 정서설명 범주는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이었다(도덕적 규칙위반 41.8%,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45.3%, 개인적 규칙위반 37.0%). 즉,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는 자신이 바라던 결과 또는 원하던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연구대상 유아 및 아동들은 판단하였다. 그런데, 연구대상 유아 및 아동들은 발달적으로 내재적 정의의 신념을 보이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Piaget 1965) 또는 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Kohlberg 1976, 1986)에 해당하는 시기임에도 ‘금지 및 규칙지향’과 ‘처벌지향’의 응답율이 1% 내외에서 최대 8%에 불과하여, 유아 및 아동들에게 금지 또는 규칙이나 처벌의 개념이 예상 밖으로 적응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개인적 규칙위반의 피해자와 모든 규칙위반 상황의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에 대한 정서설명에서도 ‘위반행위 반복’이 절반 내외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복지 및 도덕지향’에 대한 언급은 8% 이내에 불과했다. 기타와 모른

다는 응답을 제외한 범주 중에서, ‘사회조직 및 인습’의 이유는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의 관찰자 아동에서 15.8%를, ‘개인의 권리침해’는 개인적 규칙위반의 피해자에 대해 22.3%를 차지하여 ‘위반행위 반복’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기록했다.

2) 영역에 따른 등장인물별 정서설명의 차이

행위자 정서에 대한 주요 설명범주인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에서는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세 영역에서 공히 행위자에 대한 일차적 설명 범주가 바로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이었기 때문에 영역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 정서설명 범주 중에서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범주는 ‘복지 및 도덕지향’($F(2, 199)=7.74, p<.01$), ‘개인의 권리침해’($F(2, 199)=8.51, p<.01$), 그리고 ‘정서지향’($F(2, 199)=5.38, p<.05$)이었다. ‘복지 및 도덕지향’은 나머지 영역의 규칙위반에 비해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빈도가 높았으며, ‘개인의 권리침해’는 다른 영역의 규칙위반에 비해 개인적 규칙위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정서지향’은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빈번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우에 응답율은 각각 5%대 이내로 매우 응답빈도가 낮다.

피해자의 정서설명에서 영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복지 및 도덕지향’($F(1, 199)=12.70, p<.001$), ‘개인의 권리침해’($F(1, 199)=25.13, p<.001$), 그리고 ‘위반행위 반복’($F(1, 199)=10.78, p<.01$)이었다. ‘복지 및 도덕지향’은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좀 더 빈도가 높았고(도덕적 규칙위반 8.8%, 개인적 규칙위반 2.8%), ‘개인의 권리침해’는 개인적 규칙위반에서(도덕적 규칙위반 10.8%, 개인적 규칙위반 22.3%), 그리고 ‘위반행위 반복’은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더 빈도가 높았다(도덕적 규칙위반 61%, 개인적 규칙위반 50.5%).

관찰자 아동의 정서설명에서도 ‘복지 및 도덕지향’($F(2, 199)=10.18, p<.001$), ‘개인의 권리침해’($F(2, 199)=20.04, p<.001$), ‘위반행위 반복’($F(2, 199)=3.98, p<.05$)이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범주별로 응답율이 가장 높은 규칙위반 영역은 피해자에서와 같았다. 또한, ‘사회조

직 및 인습'은 도덕적 규칙위반 및 개인적 규칙 위반에 비해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서 더 응답율이 높았다($F(2, 199)=4.97, p<.001$).

관찰자 성인의 정서설명에서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범주는 관찰자 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지 및 도덕지향'($F(2, 199)=7.98, p<.01$), '개인의 권리침해'($F(2, 199)=27.78, p<.001$), '사회조직 및 인습'($F(2, 199)=33.36, p<.001$), '위반행위 반복'($F(2, 199)=4.85, p<.01$)이었으며, 각 범주별로 영역간 응답율의 순위 역시 관찰자 아동에 대한 것과 같았다.

끝으로, 정서예측에서 7세 아동의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측 응답율이 5세 유아에 비해 높았던 것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정서를 긍정적 정서('조금 기분이 좋은', '매우 기분이 좋은')로 응답한 사례에 한하여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의 영역별 응답율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5세에서는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32%($n=106$),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35%($n=103$), 개인적 규칙위반 31%($n=92$)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7세에서는 도덕적 규칙위반 48%($n=132$), 사회인습적 규칙위반 49%($n=152$), 개인적 규칙위반 38%($n=114$)로 나타나 5세에 비해 증가했다. 즉, 연령이 더 많아질수록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서 행위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며, 행위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까닭을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으로 설명하는 경향도 높아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5세 유아와 7세 아동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밝히기 위하여,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 및 아동의 정서예측과 정서설명이 어떠한지 영역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측에서 보고된 발달 경향이 우리나라 유아 및 아동들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영역구분 이론적 연구들에서 살펴되지 않았던 개인적 규

칙위반을 규칙위반 상황에 포함시켜 도덕적, 사회인습적 규칙위반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만 5세 유아와 7세 아동 200명의 면접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행위자, 피해자, 관찰자 아동 및 관찰자 성인이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 정서에 대해 유아 및 아동들은 피해자가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하고, 그 다음 관찰자 성인, 관찰자 아동의 순으로 부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며, 행위자는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으로 본다. 또한, 유아 및 아동들은 등장인물들의 정서를 규칙위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정서예측은 영역구분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행위로 정의된 개인적 규칙위반은 피해자 및 관찰자들의 부정적 정서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규칙위반에 비해 심각성이 덜한 위반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아와 아동들은 'happy victimizer' 식의 긍정적 정서예측(Arsenio, 1988; 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 & Sodian, 1988)을 모든 규칙위반 상황의 행위자에게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7세 아동들은 5세 유아들에 비해 행위자의 정서를 더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동시에 7세 아동들은 피해자의 정서를 거의 모두 부정적으로 예측하였고 개인적 규칙위반 피해자에 대한 7세 아동의 부정적 정서예측 경향은 5세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7세 아동이 사회도덕적 이해에서 퇴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다자간 조망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 각자의 상황과 욕구, 위반행위의 정서적 영향 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잠정적인 결론은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여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셋째, 유아 및 아동들은 행위자의 정서를 '결과지향 및 욕구충족'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고,

그밖의 등장인물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반복’으로 가장 많이 설명한다. 도덕적 규칙위반 뿐 아니라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 정서예측의 이유를 ‘행위자의 욕구나 목표하는 바의 충족’ 때문으로 설명한다. 유아 및 아동들은 규칙위반 영역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특정한 정서설명을 더 많이 언급한다. 모든 등장인물에서 대하여 ‘복지 및 도덕지향’은 도덕적 규칙위반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는 개인적 규칙위반에서 정서예측의 이유로 빈번하게 언급된다. 관찰자 아동 및 성인의 경우 ‘사회조직 및 인습’은 사회인습적 규칙위반에서 더 많이 언급된다. 이와 같이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정서설명에서도 영역구분론적 이해(Turiel 1983, 2008)가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와 7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 관한 정서예측 및 정서설명에서 나타난 연령 차이가 5-7세를 경계로 한 발달적 경향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은 후속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위반에 걸쳐 등장인물들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정서예측과 정서설명을 밝힌 점, 개인적 영역의 규칙위반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고 조사하여 개인적 규칙위반의 정서적 특징을 밝힌 점이 의의라고 본다.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후 유아 및 아동들의 도덕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민(1993) 도덕적 위반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0), 83-104.
- 최보가·송미화(1997)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 49-62.
- Arsenio W(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Berlin N, O'Desky I(1989)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Arsenio W, Ford M(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and conventional events. *Merill-Palmer Quarterly* 31, 1-18.
- Arsenio W, Kramer R(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4), 915-927.
- Arsenio W, Lover A(1995)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omoral affect: Happy victimizers, mixed emotions and other expectancies. In M. Killen & D. Hart (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87-12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den R, Zelko F, Duncan S, Masters J(1980). Children's consensual knowledge about the experiential determinant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68-976.
- Damon W(1988) *The moral child: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Denham SA, Zoller D, Couchoud E(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Greene JD, Nystrom LE, Engell AD, Darley JM, Cohen JD(2004)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Neuron* 44(2), 389-400.
- Killen M(1991)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2. Research* (pp. 115-13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llen M, Smetana J(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2), 486-501.
- Kohlberg L(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In T. Li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L(1986) A current statement on some theoretical issues. In S. Modgil & C. Modgil (Eds.) *Lawrence Kohlberg: Consensus and controversy* (pp.485-546). Philadelphia: Falmer Press.
- Lagattuta KH(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3-733.

- Nucci L(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Smetana J(1996) Mother's concepts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freedom. *Child Development* 67, 1870-1886.
- Nucci L, Turiel E(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Nunner-Winkler G, Sodian B(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Norton.
- Shweder RA, Mahapatra M, Miller JG(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etana J(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a J(1999) The role of parents in moral development: a social domain analysi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311-321.
- Smetana J, Braeges JL(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m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6, 329-346.
- Smetana J, Toth SL, Cichetti D, Bruce J, Kane P, Daddis C(1999)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conceptions of hypothetical and actual mor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269-281.
- Song MJ, Smetana J, Kim SY(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Sy SR, DeMeis DK, Scheinfeld RE(2003) Pre-school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for failure to act prosociall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259-272.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2008) Thoughts about actions in social domains: Morality, social conventions, and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23, 136-154.
- Turiel E, Hilerbrandt C, Wainryb C(1991) Judging social issues: Difficulties, inconsistencies and consistenc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6, (Serial No. 224).
- Turiel E, Killen M, Helwig CC(1987) Moralit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vagaries.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 155-24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ersma N, Laupa M(2000)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aried soci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46 (2), 325-341.
- Winer BT(1971) *Statistical Principles in Experimental Design*. New York: McGraw-Hill.
- Yau J, Smetana JG(2003) Conceptions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